

‘고유가 시대’ LED산업 고속 성장

(발광다이오드)

광주시, 집적화단지 구축 60~70개 기업 유치 나서

LED 조명 전력소비량 백열등 10분의 1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산업이 고속성장하고 있다. 특히 LED 조명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백열등의 10분의 1에 불과한 반면 수명은 형광등의 10배를 웃돌아 고유가 시대에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만여명의 ‘LED밸리’ 구축에 나선 광주는 향후 60~70개의 관련기업을 유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LED가 뚫는다>=세계적인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스 언리미티드에 따르면 2004년 세계 고휘도 LED시장은 36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백색 LED

조명의 상용화가 시작되는 2007년부터는 수직에 가까운 성장곡선을 그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시장도 폭발적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해 6천230억원이던 국내 백색LED 시장은 올해 8천억원, 2007년 9천6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ED조명은 수은을 사용하지 않은 광원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 받는 기술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LED시장은 활짝 열릴 수밖에 없다. LED의 가격은 10년마다 10배 하락하

고, 성능은 20배씩 개선된다는 ‘하이츠의 법칙’이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김태일 한국과학기술원장은 “이에 따라 내년 광효율과 광성능이 형광등을 추월하고 2012년 형광등보다 가격도 낮아지며 전체 조명시장의 10%를 LED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CD-TV와 자동차시장에서도 LED의 위력은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LCD-TV에 적용되는 중대형 LED BLU(백라이트유닛)시장은 매년 200%씩 성장, 2009년 2조7천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며 “전조등 등 자동차용 LED시장도 연평균 26%씩 증가, 2010년 전체 LED시장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업체 광주로 몰린다>=광주시와 광주클러스터추진단은 광산업육성 2단계 사업으로 350억원을 투입, 첨단산업단지에 9만3천평 규모의 LED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세계적인 LED 전구제조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해 LED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기로 광주시와 합의했다. 5월에는 삼성전기가 고성능 LED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광주과기원에 연구센터를 설립, 개소식을 가진 바 있다. 삼성전기는 광주과기원과 전부터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광주시의 ‘LED밸리’ 조성, 광기술원 등 연구개발지원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해 광주과기원을 최종 선택

▲LED(발광다이오드)=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소자를 말한다. LED는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디스크가 돌아갈 때 깜빡이는 작은 불빛, 도심의 빌딩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TV 리모콘 버튼을 누를 때마다 TV 본체에 신호를 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지난해 LED밸리 투자설명회에서 21개 기업이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데 이어 향후 70개까지 확보할 방침”이라며 “2010년 매출 1조원, 신규 고용효과 1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17~31일 분양작업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간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업 소식/

訪韓 히딩크에 오피러스 제공

기아자동차는 15일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현 호주 대표팀 감독)에게 방한기간 이용할 의전차로 오피러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히딩크 감독이 방한할 때마다 의전기와 함께 오피러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테니스 스타 사파코바, 축구선수 박지성 과 이영표, 풋볼스타 하인스 위드, 골프 스타 미셸 위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카드 인수 차질없이 추진”

농협중앙회는 최근 정대근(62)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상관없이 LG카드 인수 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세부사업을 기존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김동해 전무이사는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직원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LG카드 인수와 IT 사업, 조사연구소 등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무이사는 또 “현행 농협법상 회장은 비상임으로서 농정활동에만 전념토록 되어있고 사업은 전무이사 및 각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지난주 정 회장이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김동해 전무이사의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신입 대졸·인턴사원 200명 공채

대우증권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200명의 신입 대졸 및 인턴 사원 공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리서치, 도매영업, 소매영업, 국제부서, 장외파생(OTC), IT 등의 부문에서 120명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입사원은 전공에 상관 없이 2006년 8월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우증권은 또한 하계 인턴사원 공채에서도 8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며 2007년 2월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까지 대우증권 홈페이지(www.bestez.com)와 잡코리아(www.jobkorea.c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2일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예정이다.

제13회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

GS칼텍스는 14일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미술대회인 ‘제13회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를 올림피아공원내 88공원과 한일광장에서 열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전국 8천여명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등 총 2만여명이 참가했다. GS칼텍스는 이와함께 행사 주변에서 참여 가족 및 어린이들이 가장의 달인 5월을 맞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독일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행사가 진행됐고 특히 길이 30m가 넘는 대형 응원 그림을 그려 대표팀에 전달하기로 했다. GS칼텍스는 대상 수상자 2명(저학년부 1명, 고학년부 1명)과 특별상인 환경부장관상 수상자에게 최고급 노트북컴퓨터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삼성전자 ‘가로본능 지상파DMB폰’ 삼성전자는 액정화면을 가로로 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사진 및 동영상 감상에 편리한 ‘가로본능 지상파DMB폰(SCH-B410.SPH-B4100.SPH-B4150)’을 출시한다. /연합뉴스

올 성장률 전망 4.6%로 수정

한국경제연구원, 고유가 등 감안 0.3%포인트 낮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고유가와 미국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 등을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6%로 수정전망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전망치 4.9%에 비해 0.3%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환경연은 고유가 및 환율 하락 등에 영향을 받아 분기별 GDP 증가율이 1·4분기 6.2%, 2·4분기 5.1%, 3·4분기 4.2%, 4·4분기 3.3% 등으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와 환율의 영향이 특히 큰 경성수지의 경우 1·4분기 10억6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2·4분기 10억9천만달러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3·4분기까지 2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4·4분기에는 25억3천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서 연간으로는 1억4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환경연은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달러당 환율이 1·4분기 976.5원, 2·4분기 930.7원, 3·4분기 925.9원, 4·4분기 920.3원 등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두바이유 기

준 국제유가가 4분기 배럴당 59.2달러, 연말까지 나머지 3개 분기에는 배럴당 65달러 선을 기록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환경연은 1·4분기와 2·4분기 환율은 이 가격과 같지만 3·4분기에는 달러당 920원, 4·4분기에는 달러당 900원으로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대폭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성장률은 4.3%로 낮아지고 경상수지는 59억달러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10대그룹 임원 연봉 평균 3억 8,000만원

일반직원의 10배 넘어

지난해 10대 그룹 동기임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3억8천만원으로 일반직원의 10배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10대 그룹 계열 64개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0대 그룹은 지난해 사내이사사와 사외이사 등 509명의 동기임원들에게 총 1천943억1천54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1인당 평균 3억8천175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일반직원의 평균연봉 3천668만원의 10.41배에 이른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인당 평균 8억1천331만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 가운데 LG 4억856만원, 두산 3억8천771만원, 현대차 2억8천468만원, SK 2억6천599만원, GS 2억4천874만원, 한진 2억2천137만원, 현대중공업 1억7천644만원, 한화 1억3천754만원, 롯데 1억3천60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그룹 사이에서도 임원들 연봉이 천차만별이어서 삼성임원의 평균연봉은 종래의 6배에 달했다. 그룹내 개별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연봉이 37억9천6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G 11억1천185만원, LG필립스 LCD 10억9천444만원, SK㈜ 5억8천840만원 등이 5억원을 넘었다. 특히 삼성전자(81억5천만원)와 ㈜LG(25억1천400만원), LG필립스 LCD(24억400만원), 삼성물산(17억6천900만원), 현대차(14억9천400만원), 두산(11억6천400만원), GS홀딩스(10억2천800만원) 등 7개사는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만의 평균연봉이 무려 10억원을 넘었다. 반면 현대오트넷은 등기이사 평균 연봉이 3천586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적었고 코스모화학 5천718만원, 롯데칠성음료 7천600만원, 롯데상강 8천186만원 등은 1억원을 밑돌았다. /연합뉴스

판매가 세금 비중

- 휘발유 58%
- 경유 45%
- 등유 28%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4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 1천530.87원 중 57.7%, 경유 값 1천236.94원 중 45.4%, 등유 값 948.55원 중 27.8%가 각각 세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때에는 휘발유값의 61.7%, 경유값의 47.0%, 등유값의 32.0%가 세금이었던 데 비하면 기름값 중 세금비중은 상당히 내려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원가비중이 높아지면서 세금비중은 낮아진 것”이라며 “비중만 낮아진 것일 뿐 원가에 붙는 세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외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RN	[SKT서부지사] 본부장님 운전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16	062-529-2671
호철 프라도	각부분별 정규사원 (객실부/식음료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8	062-654-9999
구성HMC	제약영업, 일반영업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5/19	011-9011-3296
오이솔루션	SMT관리/제조생산 오퍼레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9	062-602-7653
정광속	ABS사출 검사, 도금품 검사 및 품질자료 분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9	062-955-6081
두보종합건설	총보 및 의료 마케팅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20	062-972-5996
테마커뮤니케이션	이벤트, 전시, 컨벤션 기획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2-412-6616
오투텍	세무/회계 경리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5/20	062-946-1114
도올	건축기술사 증급 현장대리인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5/23	062-655-9197
조이아트	영업기획사무원(미케팅사무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5/23	062-523-2530
남도정보통신	경리/회계/사무행정	고졸/경력5년	2,200~2,400	05/23	062-384-4703
엘이디아이텍	회로이해/분석가능한 전자 전문가	대졸/경력3년	2,200~2,400	05/22	062-602-784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단일 라인 생산규모 세계 최대

첨단 PDP 생산공장 선다

삼성SDI 울산에 건립

단일 라인의 생산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첨단 PDP(Plasma Display Panel·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공장이 울산에 들어선다. 삼성SDI는 15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울산사업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DP 4기 생산라인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3만여평의 부지에 총 7천300억원이 투입돼 내년 5월 준공 이후 본격적으로 PDP를 생산하게 된다. 삼성SDI는 이날 기공식을 가진 PDP 4기 생산라인의 연간 생산규모는 단일 라인으로는 세계 최대인 300만장(42인치 기준)이며, 기존 천안사업장의 1~3기 라인의 생산량까지 합치면 연간 732만장에 이른다며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PDP는 30~80인치까지의 대형 벽걸이 TV의 핵심부품인 최첨단 영상표시 패널로, 초대형 화면과 고화질 실현이라는 위치에서 TV를 보더라도 화상의 밝기나 선명도가 동일한 시야각을 갖추고 있는 등 차세대 영상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삼성SDI는 브라운관 생산의 사양으로 경영난을 겪던 울산사업장이 이번 PDP 4기 생산라인 공장 건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일반공업지역인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비롯한 이 일대 80여만평을 첨단산업단지 지정해 건축허가와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상·하수도 및 전기공급, 공급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기업

경쟁률 평균 91 대 1

올 상반기에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의 경쟁률은 평균 91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채용인원 증가로 지난해 상반기(102대 1)보다 취업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다”고 전했다. 15일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공채를 실시한 주요 기업 6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취업경쟁률은 평균 91대 1을 기록했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취업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기업은 40%인 27개사에 달했으며 경쟁률이 200대 1 이상인 기업도 9개나 됐다. 기업별로는 채용규모가 작고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5명을 뽑는 한국공항공사의 공채에는 9천200명이 지원, 3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6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쟁률도 337대 1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국전기안전공사(248대 1), 농수산무류통공사(240대 1), 한국수자원공사(186대 1), 한국조폐공사(173대 1), 인천관광공사(122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여 안정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